

9. 2023. 5. 23. 화 오전 15:00 까지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10. 2023. 5. 23. 화 오전 15:00 까지 감 꽃 김준태 어릴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썰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11. 2023. 5. 23. 화 오전 15:00 까지 낙타 이한직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 오신다. 회초리를 드시고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옛날에 옛날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원 동심의 옛 이야기가 여기 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12. 2023. 5. 23. 화 오전 15:00 까지 봉선화 김상옥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누나